

2020 -2 월호 인도자용 소그룹 교재

1주

사사기 1장 1절 - 7절, “하나님께 묻다”

찬송

375 나는 갈길 모르니

440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주님 말씀하시면

1. 여는 질문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 또는 새로운 곳에서 정착을 시작할 때를 기억하세요? 어떤 기도를 드리셨나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기억하는 일’ 입니다. 은혜에 대한 ‘기억’ 이 사라지는 순간, 감사는 그치고 삶은 불안해지기 마련이지요. 막막했던 이민 초기의 경험들을 함께 나누면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억해봅시다. 그 시절의 마음과 지금의 신앙은 얼마나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2. 본문 이해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도 죽었고, 광야시절 내내 그들을 인도하던 요셉의 뼈도 세겜에 묻었습니다. (수 24장 32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하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여전히 철기를 사용할 줄 아는 가나안 족속들은 강하고 무서운 존재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처음 한 일은 “여호와께 묻는 일”

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움을 시작할지 물었고, 기도의 응답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새로운 땅이 주는 긴장감은 그들이 무릎 꿇는 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땅에 적응하게 가면서 “나 혼자서 할 수 있어” 라는 생각도 커져갔던 것일까요? 사사기를 읽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 여쭙었다” 라는 구절을 다시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전쟁에 함께 출전하였습니다. 유다는 시므온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했고, 시므온은 기꺼이 따라나섭니다. 자기 땅을 차지하는 일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편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돕습니다. 함께 힘을 모을 때 이기기 힘든 적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끝은 이스라엘 민족 간의 내전으로 마무리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여호수아와 광야를 경험한 선배들의 신앙을 잘 간직했다면 좋았을텐데, 익숙함과 풍요로움이 정작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3. 말씀 속으로

1.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물어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자신들의 상식이나 생각대로 일을 시작하지 않고, 먼저 주님께 여쭙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2.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

[성경은 ‘주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었다’ 고 기록합니다. 승리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여호수아는 자신의 고별 설교에서 ‘주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 당신들을 당할 사람이 없다’ 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 백성들은 (적어도 사사기의 초반부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삶 속으로

1. 새로운 상황이 익숙해지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일이 게을러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며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4) 사사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도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내딛을 때의 첫 마음”을 잊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2.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유다에게 시므온이 그랬던 것처럼 함께 도우며 동행할 신앙의 벗이 있나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지파가 가장 먼저 올라갈 때 시므온이 동행하였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믿음의 벗과 함께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그런 사람이 금방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 말씀과 질문을 나누는, 이 모임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믿음의 지원군이 되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3.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싸움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사사기의 본문을 오해하여, 어떤 정복 전쟁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읽어서는 안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어떤 민족이나 국가를 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존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그것들을 우리 삶에서 남김없이 쫓아내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어떤 유혹이나 염려/두려움이 크고 무서워 보이지만,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5. 암송구절

사사기 1장 1절

“...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6. 자녀와의 나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물어보니?

[제대로 알고, 또 살기위해 물어보는 일은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나 선생님도 모르는 것이 있지요. 많습니다. 그럴 때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은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 기도의 습관은, 자녀들이 평생토록 누릴 신앙의 유익입니다]

2주,

사사기 6장 11절 - 24절, “마음 상한 자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찬송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생명 얻은 몸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내 이름 아시죠

마음이 상한 자를

1. 여는 질문

오늘 예수님을 직접 뵈 수 있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좋은 학생일수록 좋은 질문을 한다고 하지요? 우리가 떠올린 질문은 우리의 영적 상태와 삶의 정황을 보여 줄 것입니다. '왜 그게 궁금하세요?' 라고 다시 질문해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 봅시다.]

2. 본문 이해

여호와와 사자를 만난 기드온은 인사도 없이 질문을 퍼붓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왜 자신과 동족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냐는 물음입니다. 조상들이 경험했다는 구원의 손길이 왜 지금은 보이지 않는지 묻습니다.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자신과 공동체의 처지를 아파하는 젊은이의 정직한 물음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

기드온은 아직 아멘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은 가문에 속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반문합니다. 주께서는 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면 너는 승리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쯤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사야의 고백이 있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표징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십니다. 고기와 무교병을 불사르기도 하시고, 양털을 이슬에 적시기도, 마르게도 하십니다. 기드온의 상한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점령자들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해야만 하는 비참한 상황이 가져다 준 마음의 상처를 이해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천천히 그리고 자상하게 기드온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십니다.

여호와와 사자를 대면한 날, 그는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삶의 조건이 변한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가 함께 계시다는 것만으로, 그가 나를 통해 일하시기로 약속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삶의 자리는 여호와 샬롬이 됩니다.

3. 말씀속으로

1. 여호와와 사자는 기드온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12절) 점령군의 눈을 피해 포도주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사람에게 이 호칭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힘센 장사야’ 라고 부르십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지만, 그는 원래 하나님께 속한 위대한 장사입니다. 비록 지금은 초라한 모습이지만, 여호와와 사자는 기드온의 본래적 정체성 authentic self 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 표징을 원하는 기드온에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증명하십니까?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과 국을 불사르십니다. (21절) 6장 36절 이후에는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거나 양털 뭉치만 이슬에 젖지 않게 하심으로 기드온을 믿게 하십니다]

3. 왜 하나님은 기드온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셨을까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요한복음 20장) 는 말씀이 기드온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물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의 낮아질대로 낮아진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시려고 이런 기적을 보이신 일이 이번 한번 뿐이 아닙니다. 모세 앞에서는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4. 삶 속으로

1.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생겨났냐고, 기드온처럼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그 기도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건강한 신앙은 질문하는 신앙입니다. 물론, 모든 질문에 '명확한 답' 을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삶과 믿음은 대부분 '신비' 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직하고 진지한 질문을 멈출 수 없습니다. 서로가 품은 크고 작은 질문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축복에 관한 기드온의 질문에 대해 직접적인 답을 주시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다오...' (14절)]

2. 지금 하나님은 어떤 표징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과 권능을 여러분에게 증명하시나요?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 주었던 서로의 경험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놀라운 사건' 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내가 숨을 쉬고 있다' 와 같은 아주 작고 일상적인 사건도 엄청난 표징이 될 수 있습니다.]

3. 당신은 삶의 어느 순간,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여호와 샬롬) 라고 고백합니까?

[언제가 가장 평화로우시죠? 잠들기 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갖는 커피 타임?

그런데,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을 외친 때는 6장 24절입니다. 아세라 상을 찍어 버리고, 300명의 용사와 함께 멋진 승리를 장식한 이야기는 모두 '그 뒤'에 나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상황이 안정되어서 하나님이 평화이신 것이 아니라,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기 전이지만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임마누엘) 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화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5. 암송구절

삿 6:24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6. 자녀와의 나눔

속 상한 일이 있을 때, 어떤 말을 들으면 마음에 위로가 되니?

[골로새서 3장 21절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시키지 말라고 말합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언어를 배워가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위로하며 살아갑시다]

3주,

11장 29절 - 40절, "입다의 서원"

찬송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불드사

1. 여는 질문

비극적인 영화나 소설을 좋아하세요? 기억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 들려주시겠어요?

[오늘 본문은 성경의 가장 슬픈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오래도록 다양한 예술작품의 소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에는 단순히 '슬퍼서 아름다운 감동' 이상의 무엇이 있겠지요? 서로가 아는 '슬픈 이야기'를 나누며 사사 입다에게 일어난 사건을 들을 준비를 해 봅시다]

2. 본문 이해

비극 애호가들을 위해 지어낸 이야기라면, 작가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가장 기쁜 승리의 날, 가장 보고 싶었던, 가장 사랑하는 딸을 만납니다. 그녀는 순진한 얼굴로 소고를 치며 아버지의 귀환을 환영합니다. 입다는 원래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형제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결국 집을 나와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니, 사랑을 주고 받는 일을 가르쳐 준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그날, 집 앞에서 자신의 딸을 만난 입다는 참담한 심정으로 옷을 찢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했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이겼지만, 전쟁에서 이기고 성공하는 일에 눈이 멀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서원을 했습니다.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31절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자신의 아들과 딸이라도 불에 살라 바치는 행위를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신다) 이방 민족과 섞여 지낸지가 오래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잊은 것일까요?

서원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약속이지만, 우리의 요구를 달성하기 위한 딜deal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행위와 보상을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테니 하나님도 이거 해 주셔야 되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3. 말씀속으로

1. 입다는 전쟁의 승리를 요구하며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드렸나요?

[입다는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였습니다.]

2. 사람을 재물로 드리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생각을 입다는 왜 하지 못했을까요?

[전쟁에서 꼭 이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무시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였으니 보란듯이 승리하여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식의 서원을 자신들의 신에게 드리는 이방 사람들의 풍속도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2장) 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4. 삶 속으로

1. 잘못된 말이나 경솔한 약속으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입다의 경우처럼 엄청난 사건은 아니지만, 우리도 일상에서 경솔한 언행으로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달라고 기도하는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2.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딜(거래) 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있으신지요?

[입다의 비극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했던 교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상관하지 않고 말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입다가 돌아오는 길에 '강아지'나 다른 동물을 만날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라 말합니다. 으레 먼길에서 돌아오는 이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는 동물들이었으니까요. 아무튼, 우리 삶에도 그런 유혹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소망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클 수록 그렇습니다. 하지만 꼭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와 서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3. 입다의 딸처럼 지도자들의 잘못된 결정이나 욕심으로 인해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알고 있나요? 기독교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잘못된 신앙과 결정으로 인해 희생당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힘있는 사람의 잘못으로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갈등 속에 전쟁을 겪는 아이들,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해 큰 경제적 손실이나 실직을 경험하는 사람들, 산불이나 환경의 변화로 멸종되는 동물들, 난민들, 소수자들... 무엇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는 많은 이들의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로마서 12장 5절) 그들을 향해 사랑과 정의의 손길을 뻗어야 할 것입니다]

5. 암송구절

삿 11:35,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6. 자녀와의 나눔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니? 하나님과의 약속은 얼마나 중요할까?

[자녀들과 함께 “맹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12절) 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바른 약속(서원) 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4주

17장 1절 -13절, "제 멋대로"

찬송

430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569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1. 여는 질문

지난 설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나누셨나요? 모두들 그리 받고 싶어하는 “복” 이란 무엇인가요?

[설날이 되면 일상적으로 주고 받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28절) 처럼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실텐데, 그가 정말 주시기 원하는 복,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바래야 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2. 본문 이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미가의 모습은,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게을렀으며, 그러면서도 복은 받고 싶어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은돈 천백냥을 도둑질했다가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였는데, 그의 어머니는 도둑에게 했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 은 이백냥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녀의 지갑안에 부적을 넣어 주며 하나님의 복 받기를 기도한다고 말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미가의 집에는 신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엔 에봇과 드라빔이 함께 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입는 옷이고, 드라빔은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어지는 우상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한 레위청년을 만납니다. 일년에 은 열냥과 옷 한벌로 연봉 협상을 마치고, 자신의 사적 종교인으로 그를 채용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레위인이 자신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줄 믿고 있습니다.

복을 받았을까요? 얼마 후 단 지파 사람들이 그 집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집에서 은을 입힌 목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모두 훔쳐갑니다. 레위 제사장도 그들을 따라 떠납니다. 미가는 뒤늦게 그들을 쫓아 가지만, 자신의 힘이 약한 것을 알고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에는 사사기의 미가가 아닌 또 다른 미가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진짜 복 받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mercy) 를 사양하며 주와 겸손하게 동행하는 일입니다. (미가 6장 8절) 출신 좋은 제사장을 집에 앉혀 놓았다고, 드라빔을 가지고 있다고, 여호와가 복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3. 말씀속으로

1. 미가가 드라빔을 신당에 들고, 제사장을 사적으로 고용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13절)

[그렇게 하면 주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 미가는 어떻게 하면 여호와가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나요?

[성경은 그 시대에 왕이 없어서, 자기들이 좋게 생각하는대로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미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경쓰지 않고 개인의 신당을 만든다거나 제사장을 고용해서 주기적으로 복을 빌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 삶 속으로

1. 지난 한 주간, 당신의 삶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였습니까?

[미국이나 한국에서 우리는 왕이 없는 정치제도 속에 살지만, 여기서 왕이란 '자신을 다스리는 존재'를 말합니다. 권력을 쫓아 살았다면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고, 육체의 욕구만을 쫓았다면 우리 몸이 왕인 셈이지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돈을 왕으로 모시고 삽니다. 지난 한 주간, 무엇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 오셨나요?]

2. 우리의 삶에는, 스스로는 옳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은 싫어하실만한 것이 있지 않나요?

[사사기 후반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어서 결국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3. 나의 모습과 행위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나요?

[시편 119편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는 길에 등불이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적 가르침에 뿌리를 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맺고 있는 열매들을 정직하게 살펴보는 일도, 누가 내 삶의 주인인지를 확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나무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5. 암송구절

삿 17:6,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6. 자녀와의 나눔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할 때 가장 기분이 좋으시고, 또 예쁘다고 하실까?

[어린이와 같아야 천국에 가깝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녀들을 통해 배우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길 소원합니다.]